마음 닦으면 누구나 부처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승정 금당 목탁



看看佛祖的真面目就知道
부처님 참모습을 보고 바로 깨우쳐라.
要像佛祖
부처님을 닮아야 한다.
只要正心, 谁都可以成
마음을 바로 닦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不但要像佛祖,肚子也要像
부처님의 가르침과 모습, 그리고 속까지 닮아야 한다.

중생과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19의 고통을 소멸하는
부처님 탄신일 봉축이 되자.

아픔 치유의 등을 밝히자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니련선하에 빗소리가 떠나간 밤, 둥근달이 뜨듯 부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캄캄한 밤에 불이 켜지듯, 부처님은 가릴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시고, 무명을 밝히며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모두 인간의 끝없는 탐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여의라는 부처님 말씀을 간과한데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매우 뜻깊은 법석을 열어야 하는 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정토의 원력을 굳건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화목의 등, 코로나 치유의 등, 아픔을 위로하는 관세음의 등, 앞날을 환히 비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의 등을 저마다 불 밝혀 부처님 오신날을 찬탄합시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신뇨엔은 매일 코로나극복기념, 희생자회향, 미증유의 사태수습에 진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 저는 '南無眞如' 라는 진언을 외울 것을 권유해봅니다. '眞如' 란 지혜와 자비, 삼보의 공덕을 담은 구제의 힘이자, 귀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깃드는 마음의 빛입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치료제, 백신 개발 연구와 함께 퇴치하는 힘의 결집은 '지혜' 이며,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배려하며 서로 돕는 것이 '자비' 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실천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극복해 나갑시다.

중생 널리 구제함이로다

동행승가단
총재 무송



奉獻燈燭三寶前
(봉헌등촉삼보전)에
一切光明遍法界
(일체광명변법계)요
照破三界之昏衢
(조파삼계지혼구)는
南贍部洲廣濟泉
(남섬부주광제천)이로다
삼보전에 등촉 밝혀 받들어 올리오니
일체 광명의 빛이 온 법계에 두루 하고
여례의 밝은 빛은 어두운 네거리를 타파하니
인간세상 모든 중생 감로수로 널리 구제 함이로다

상대방 존중하는 마음을…

대한불교 삼보종
총무원장 법장



진리법에 의지하면 희망과 기쁨이 따른다. 사람에게 의지하면 불행과 고통이 따른다.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불경에 수일사견(水一四見)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은 물을 보면서 사람은 먹는 물로 보고, 물고기는 자기 사는 집으로 보고, 귀신은 활활 타는 불로 보고, 천상의 사람들은 감로수로 본다 합니다. 이렇게 중생들은 업에 따라 같은 대상도 전혀 다르게 봅니다. 아직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중생은 언제라도 잘못 판단할 수 있지요. 허망한 허상에 바탕을 두고 산다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자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높이 떠올랐던 화살도 기운이 다하면 땅에 떨어지고 피었던 잎도 떨어지면 뿌리로 돌아갑니다.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나로 보고 내가 이웃이 되고 열이 하나가 되고, 백도 하나가 되는 융화의 중도를 바로보고 분별의 고집을 버립시다. 모두가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 잘사는 나라. 우리 모두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참된 삶 행하는 불국토를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부처님오신날 밝은 연등을 높이 들어 봉축하고 마음을 다해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곧 부처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고귀한 가치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삶을 되새겨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지금 우리의 이웃을 위해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는 참된 삶을 실천하는 불국정토 사회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집착 버려야 법성 만난다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나란 번뇌와 시비다툼으로 오염된 혼탁한 내가 아니고, 태양처럼 밝고 영원한 법성이 진정한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이 집착으로 인한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성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복이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불자님들의 가정에 항상 밝혀지기를 서원 드립니다.

봉축하며 무명 걷어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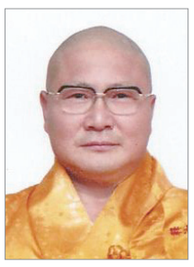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혜안



지리산 구재봉 무량겁 무량광불 풀섭에 놀고있는자, 일곱 봉우리 어찌 볼까 옥중 춘향이 어떤죄로 갇혀 있나요. 이현령 비현령 관장수청 거역죄라 독초가 무성하니, 상처는 예사롭고 예쁜 꽃잎 떨어지면 좋은 열매 얻으리라. 그대들은 못 보았는가 민심이 천심인줄 자비연등 불 밝힐 때 속죄하기 딱 좋은데, 인연없는 중생들 부처인들 어쩔거나, 우리 모두 부처님 오신날 봉축하며 무명을 걷어 냅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처처불상(處處佛像) 사사불공(事事佛供)이라 심경여등(心敬汝等) 불감경만(不敢輕慢) 하며, 개행보살도(皆行菩薩道) 당득작불(當得作佛)이니라.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믿고 기도 정진하며 모두를 깊이 공경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기지 않으면서 보살도를 닦으면 코로나19도 박멸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마음 등불을 밝히시기를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두운 것은 가고 밝은 것이 오리라는 염원의 등불을 밝혀 일체중생이 이고득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들을 부처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쓰라린 상처를 부처님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껴안아 주십시오!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정진하면 언젠가 부처님전에 닿으리라는 믿음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각자의 등불을 밝히고 보람된 삶 이루시기를 발원합니다.

온정 베푸는 자비행 하자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사바세계의 번뇌를 씻어주고 온 생명에 행복과 안락을 내려주는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늘은 청명하고 산천초목이 푸르러지는 화창한 봄날, 이 행복한 순간을 피부로 느끼며 온전히 만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봉축의 환희와 기쁨도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수많은 보살의 실천과 서원을 통해 모든 생명이 존귀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의 연속이지만, 어려울 시기일수록 주변을 돌아보고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움으로 서로를 아끼며 따뜻한 온정 베풀어 갑시다.

聲前眉語傳默然眼微笑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소리전에 눈썹 말이 전하고 묵연히 있다가 눈이 사르르 미소 짓네. 우리가 입으로서 말을 한다고 하지마는 눈썹이 말을 하고 눈만 꿈쩍 하고 눈만 떠도 불법의 소식을 전하고 다 통한다.
우리가 청과시장 가보며 어디 말을 하느냐? 손으로 값이 다 나온다. 그러니 진리법문(眞理法門)이라는 것은 진리(眞理)는 무언(無言)이라 이치(理致)는 말이 없고, 무법가설(無法可設)이라 법(法)을 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이 설법(設法)인 것이다. 코로나 극복도 눈으로 전달하고,
하루빨리 소멸되기를 기원합니다.

진리 추구하며 잘 삽시다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이기와 독선이 지금의 우리 시대를 어둡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오직 '나' 만의 이익을 탐하고 안일을 추구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견과 아상은 다른 이를 미워하며, 해치고자 하는 무서운 몰이해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곳을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파경으로 이끄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불자로서 참답게 살려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등불처럼 밝혀야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심생종 종종법생(心生積 種種法生)
심 멸 종종법멸(心滅 種種法滅)
약불전법 도중생(若不傳法 度衆生)
필경무능 보은자(畢竟無能 報恩者)

마음이 일어나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살아지면, 만물이 살아진다.
만약,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은혜가 없다.
이러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해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며, 신종 코로나를 물리치고 복과 지혜가 가득하여 세상일이 다 풍요로워지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일상 행복위해 평상심을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오늘은 좋은 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축복의 날입니다. 화사한 봄날을 맞듯 환희의 초파일을 기대했으나 조심스럽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의 위협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차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 안정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 스스로가 이겨내야 하는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로 귀결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고, 원망할 일도 아닌 작금의 사태에 스스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곧 다시 맞이할 일상의 행복을 위해 평상심을 회복합시다.

우리 모두 희망등불 되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불기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즉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본래 평등한 존재로 자신의 등불을 스스로 밝히고, 진리의 등불을 삼아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나와 어려운 이웃의 등불을 밝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평화로운 세상을 발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지혜 자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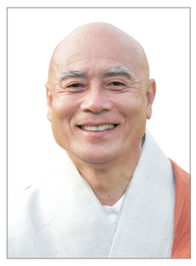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아름다운 초목과 정겨운 새소리, 살랑거리는 오색연등이 어울려 연주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히는 까닭은 어두운 세상을 지혜와 자비로 아름답게 수놓으려는 모든 불자들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하게 밝히는 마음의 등불이 팬데믹 상황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자비광명의 등이 되고 자비실천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기쁨도 함께 나눠 모두가 행복한 환희와 축복으로 질병 일체가 소멸되고 지구촌 곳곳의 나라마다 사람마다 부처님 무량가피가 무궁무진 드리우기를 기원합니다.

진실은 늘 그자리에 현신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설국 무명



본래 나지 않는 법을 설하고자 부처님 나투셨고, 드러낼 수 없는 법을 드러내고자 장광설을 쏟아내셨도다.
진실 된 모습은 텅 비어 보이지 않지만 묘용(妙用)과 자재(自在)가 서로를 의지한다네. 그대들의 부름에 응답하거나 말거나 진실의 모습은 늘 그 자리에 현신해 있다네.
무명(無明) 속에 걸림 없는 지혜보배를 찾은 이는 무명(無名) 속에 거닐며 진속(眞俗)을 상관 않네.
1,2,3,4,5,6,7
일곱 걸음이 한 걸음도 떼지 않은 자리임을 안다면 그대들을 나고 죽음 없는 무생(無生)의 눈뜬이라 부르리.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내야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오늘 진리의 꽃비가 사바의 중생들에게 두루 하는 신록지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부처님을 맞이하여 중생 모두가 등불이 되어 어둠을 걷어내고 광명천지 부처님의 가피로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연등만으로 무명을 다 걷어낼 수는 없겠지만 마음의 불을 밝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처님 같이 공경하고 존경하여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비로소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